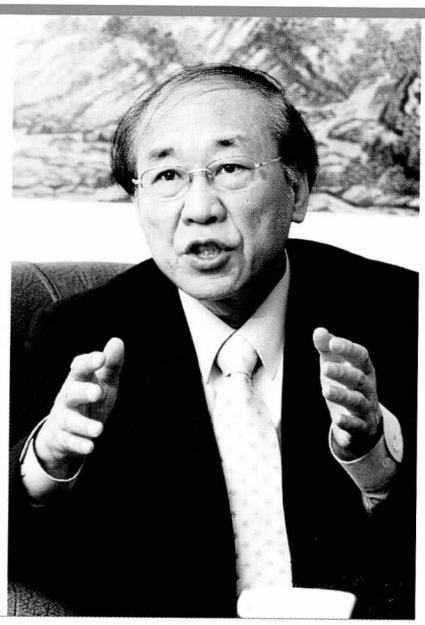
새로운 가치창조의 도약을 기대하며



친애하는 화협 가족 여러분 !

오늘 우리 협회의 창립 32주년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가 1970년대 초 국가적으로 화재안전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전문방재기관으로 출범하여 전 직원이 하나되어 주어진 소임을 수행해 온 지도 벌써 3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노력이 안전사회를 이룩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자부하며,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 협회는 설립 이후 주위 환경여건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우리 협회는 1973년 130여 명으로 출범하여 1979년 600여 명까지 확대되었다가 보험 풀(Pool) 해체에 따른 인원 감축과 IMF로 인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현재 200여 명 수준으로 감소되어 외형상 우리의 입지와 역할이 축소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5억년의 역사를 가진 지구상에서 영원할 것 같은 거대한 공룡이나 맘모스가 사라진 것을 보면 강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적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문호 '앙드레 지드'는 "무수히 변하는 것들 사이로 영원한 열정을 몰고 가는 자는 행복하다"는 말을 통해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열정이 행복의 출발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이러한 열정을 갖고 주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그 결과 내실 면에서는 더욱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가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국회에서 화보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협회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지난 30여 년간 맡은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창립 서른 두 돌을 맞이하는 올해는 그 동안 축적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국가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우리 협회의 존재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는 해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우리 협회가 좀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목표와 도전정신을 갖고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인 목표설정과 도전을 통하여 개인의 성취감과 업무능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 내 구성원 모두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의 깃발을 세워 신바람 나는 협회를 만들어 갑시다.

둘째,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아는 것을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야 말로 성공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중요한 차이"라는 스탠포드大 제프리 페퍼 교수의 말은 그 주체가 경영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협회 구성원 모두가 무엇이 협회를 위하는 길인가를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경영진의 노력은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협회를 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행동으로 바뀔 때 협회는 그 어느 회사보다도 탄탄하고 견실한 조직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직원 모두 리더십을 갖고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제네럴 일렉트릭(GE)의 잭 웰치 회장은 "내가 교제해 온 사람들이 항상 주도적이지는 않더라도 보다 열심히 일하고 더욱 일을 즐기며, 마침내는 그들이 가능하다고 여겼던 것 이상의 성취를 이룸으로써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존경심과 자신감을 얻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리더십을 갖고 직원 상호간에 서로 Win-Win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지난 2004 회계연도에 10개 사원사에서 거두어들인 원수 보험료는 전년보다 13.2%가 증가한 22조원에 달했으며, 당기순이익은 5,617억 원을 기록하여 87.7%나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협회의 공동인수 보험료 수입도 전년보다 36%가 증가된 279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포화상태인 것 같은 손해보험 시장이 아직도 개척할 부분이 많다는 것과 손해보험업계를 위해 우리 협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우리 협회는 '종합방재 서비스로 안전문화 정착에의 기여'와 '위험관리 활동을 통한 손해율 경감'이라는 업무목표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화재 · 폭발 분야를 포함하여 최근 점증하는 풍수재해에 의한 손해율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화협 전 가족이 한 마음으로 정진해 주길 기대하며, 아울러 급변하는 주변 환경 속에서 모든 국민에게 신뢰받고 보다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분발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협회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5. 13

이사장 곽정훈